



베데스다선교병원 이야기꾸러미

베데스다선교병원 소식지 발행인 임현석 편집인 마이클 리 주소 P.O.Box 22672, Kampala, Uganda TEL. +256-393-274584 홈페이지 <http://www.ubmh.org>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장 40절 中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 25장 45절 中

목차

2019 7~9
(Vol. 15)

컬럼_ 02 선교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기 | 강지은

베데스다 NEWS_ 03 부부마섬 베데스다 진료소 외과 아웃리치 외
05 2019년도 3분기 안과 소식

아웃리치 & 캠프_ 06 2019년도 상반기 일반 외과 캠프를 마치고...

기도나눔_ 07

협력 및 후원 안내_ 08

선교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기

놀아줄 수 있을 때, 애들이 놀아주라고 할 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케냐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우간다로 올 때 저는 반갑기도 하지만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할 힘 외에도 집에 오는 애들과 함께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피곤해서 같이 못 해주겠다고 말을 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학기(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방문 시에는 애들이 머무는 한 달 반만큼은 주일 말씀을 전하는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가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현지 리더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밤 10시 근방에 잠을 자는데 애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취침 시간이 11시가 넘어 갔습니다. 12시까지 애들과 같이 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벽기도시간을 평소보다 늦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아침과 밤에 운동을 꾸준히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애들이 자고 있어서 주로 아내와 운동을 하였고 밤에는 아내가 교회에 밤 기도를 하러 간 사이 애들과 같이 운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막내아들은 이번에 걱정하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딸 바보야.’ 아빠는 누나들하고만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주고 자기하고는 잘 안 놀아준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이 자기하고 날마다 저녁에 1시간씩 탁구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탁구를 하지 않은지가 몇 년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이 아들과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아들의 키가 작을 때는 구석으로 공을 보내면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저보다 키가 더 커서 그런 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애들은 학교에서 탁구를 자주 치고 있어서 제가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였습니다.



강지은 선교사 가족(진주, 은혜, 강지은/이정남 선교사, 노아)

저의 원칙은 경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승부욕이 강해서 자기가 한 두 번 이긴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 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은 자기와 함께 해주는 것에 만족하고 얼굴이 퍼졌습니다. 저도 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고,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2주를 하고 애들이 학교에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계신 선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애들이 곧 돌아가서 서운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름 충분히(?) 애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들도 만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애들과 같이하는 시간을 가질수 있게 해주시고 합당한 때에 애들을 다시 케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애들이 아빠에게 놀아주라고 할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보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놀아줄 수 있을 때, 애들이 놀아주라고 할 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강지은 진료부장
(내과전문의/UBF 마케레레 챕터 대표)



부부마섬 베데스다 진료소 외과 아웃리치



탈장 환자를 수술하는 신동수 선교사(오른쪽)

신동수 선교사(외과전문의, 목사)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병원이 운영하는 부부마섬 부칼리 베데스다 진료소에서 외과 아웃리치를 개최하고, 탈장환자 10명을 수술했습니다. 캠프에는 임현석 원장과 송종률 선교사가 동행하여 수술 외에도 진료소 인근 마을 어린이들을 진료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신 선교사는 의외로 많은 섬 주민들이 탈장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치료시기를 놓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집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그리고 째지돈 2만 실링을 수술비로 가져오는 가난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신 선교사는 탈장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해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섬을 방문하여 탈장 수술을 해주자고 제안했으며, 보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부부마섬 헬스센터 IV와 협력관계를 맺자고 했습니다.

현재 부부마섬에는 섬의 전체 보건을 담당하는 도-보건소(District Health Centre)에는 일반의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탈장 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외과 환자 수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과의 협력으로 부부마섬의 탈장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비전케어 아이캠프 개최

8월 12일부터 16까지 (사)비전케어 아이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우간다 안과 의사 대상PTC(Phaco Training Course) 3차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안과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훈련을 받았고, 훈련을 겸한 백내장 수술을 통해 32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시력을 선물했습니다.

PTC와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안과전문의 김재윤 선생, 안진형 선생과 간호사 김윤아 선생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환자 수술을 마치고 캠프자 모두 함께

2019년도 하반기 성형외과 캠프

고명규 선교사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2019년도 하반기 성형외과 캠프를 진행했으며, 12명의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여전히 화상으로 손이나 발 등 신체 조직이 물어버린 환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도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목과 얼굴을 포함하여 상반신이 화상으로 구축된 10대 소녀 마이무나(Maimuna)입니다. 마이무나는 지난 3월에 목을 수술받았고 이번에 왼쪽 겨드랑이를 수술받았습니다. 심각한 화상에 의한 고통과 후유증, 그리고 힘겨운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을 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무나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료되어 좀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 선교사는 내년 부터는 캠프 일정을 변경하기로



상반신이 화상으로 구축된 마이무나

했습니다. 지금 까지 3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하던 캠프를 한 차례로 줄여 1분기 중에 개최하고, 기간을 2~3개월로 늘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집중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골든베리 유치원/초등학교 직원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기다리고 있는 교직원들

9월 11일(수)에는 골든베리학교(유치원/초등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건강검진은 골든베리 유치원/초등학교(Golden Berry Nursery/Primary School)을 운영하는 안정근, 정미향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일반 검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5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내과 문진과 혈액 및 간염 검사를 위한 채혈을 했습니다. 대부분 직원은 건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이상 소견이 나온 몇몇 직원은 병원을 방문하여 재검과 상담을 받았으며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날 건강검진을 마친 강지은 선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기타 직원의 건강과 복지에 신경을 쓰는 안정근, 정미향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며 바른 선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감격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베데스다 선교병원도 다양한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룬디 난민 휠체어 기증 및 의료인력 훈련



휠체어를 제공받고 감사인사를 전하는 부룬디 난민

지난 9월 11일(수)에는 부룬디 난민에게 휠체어를 증정했습니다. 우리 병원과 협력하여 부룬디 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난민생활지원네트워크(RLSN, Refugee Life Support Network)는 난민촌에서 맛토케(matoke)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 중풍으로 쓰러진 부룬디 난민에게 휠체어를 제공해줄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우리 병원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병원에는 우간다 동쪽 케냐 국경지역 부시아(Busia)에서 장애인 사역을하는 박민수 선교사님이 제공해주신 휠체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병원은 RLSN의 요청으로 지난 6개월간 간호 실습을 마친 두 명의 간호사에 이어, 추가로 간호사 한 명과 임상병리사 한 명에 대해 6개월간 임상 실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우간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간다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맛토케(matoke)는 우간다 사람들의 주식으로 완전히 익기 전 푸른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 삶아 으갠 감자와 같이 만들어 땅콩 소스와 함께 먹거나, 콩과 같이 요리해 먹는 바나나 종류 중 하나. 우간다에는 맛토케 외에도 손가락 길이 만한 몽키 바나나, 굵거나 튀겨 먹는 곤자, 바나나보다 더 크지만 단맛이 떨어지는 보고야,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바나나 등이 있음.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바나나의 원산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필리핀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함.



故 안정숙 선교사

골든베리학교(유치원/초등학교)는

故 안정숙 선교사(2017년 2월 소천)님께서 2002년 유치원 한 학급, 10여 명 밖에 안되는 아이들과 함께 시작한 기독교로 현재는 50여 명의 교직원과 함께 유치원 다섯 학급 150여 명, 초등학교 9학급 25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든베리 학교는 우간다 기독교(개신교, 카톨릭) 순교자 기념관이 위치한 나무공고(Namugongo)에 있으며, 현지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이념과 교육 방법(멀티미디어, 컴퓨터 등)을 도입하여 소수의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운영을 맡은 안정근 선교사님은故 안정숙 선교사님의 동생으로 안 선교사님 소천 이후 일 년에 서너 차례씩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을 챙기다가 2019년 1월 직장을 조기 은퇴한 후 아내 정미향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안과 소식

2분기에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여기 저기 생겼고 이런 저런 일들을 수습하고 처리하느라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KOFIH (한국 국제 의료재단)에서 프로젝트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굴루(Gulu) 병원을 다녀왔고 수술실 간호사 아졸리(Azoli)는 바쁜 학업 가운데서도 탄자니아 SONTC(Surgical Ophthalmic Nurse Training Course)에서 강사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나카세케(Nakaseke) 캠프 환자였던 줄리어스(Julius)가 거의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서 주드배 선교사의 공막버클(encircling) 수술과 멩고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posterior vitrectomy)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 개최된 COECSA(동중남부 안과학회)에 주드배 선교사와 최영단 선교사가 참석하여 특히 PTC의 열매들인 에티오피아 의사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3분기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와 소식입니다.

1. 아이 캠프 및 아웃리치

| 구 분 | 참여자 및 내용 | |
|------------------------------------|----------|--|
| PTC & SONTC 3, 안과캠프 (8월 12~16일) | 참여자 | 안과전문의: 안진형, 김윤아, 데레제(Dr. Dereje, 에티오피아) / 간사: 최인선 |
| | 내 용 | 수술 32명, 외래 188명 진료 훈련생이던 Dr. 데레제와 간호사 아졸리가 강사로 활동 |
| 토로로 병원 패코 훈련 지원 (9월 2~5일) | 참여자 | 안과전문의: 주드배(패코) |
| | 내 용 | 토로로 베네딕트 안과 병원에서 PTC 훈련생 안과의 아라치(Dr. Arach)와 토로로 병원 안과의 로버트(Dr. Robert) 패코 교육 |
| 엔테베 병원 아웃리치 (9월 16~19일) | 참여자 | 안과전문의: 주드배, 최영단 |
| | 내 용 | 안과는 있으나 수술이 진행되지 않아 엔테베 병원에서 1일 캠프를 하며 백내장 환자들을 스크린하여 우리 병원에서 백내장 13명, 녹내장 1명 수술 |

2. 신규 장비 도입

영상 외부 출력 기능이 추가된 새 슬릿램프(slit lamp)가 9월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작동하지 않았던 망막 시신경 촬영 카메라(fundus camera)가 수리되어 다시 우간다에 들어왔습니다.

3. 수술실과 외래 간호사 신규 총원 추진

아졸리가 학업으로 월, 화에 근무하지 않는 가운데, 수술실 책임 간호사로 일하던 플로렌스(Florence)가 학업을 위해 8월에 갑자기 퇴사하고 안나메리(Annmary)도 학업을 위해 수, 목요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솔로몬(Solomon)도 새 직장을 얻어 퇴사함에 따라 외래와 수술실 모두 간호인력 부족이 발생하여 수술실 준비, 수술 스케줄, 외래 진료, 아웃리치 검진 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0월에는 신규 간호사들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4. 협력 지방병원 안과의사들의 근무지 이동, 직원의 결근으로 코피 사업 진행 어려움

리라(Lira) 병원에서 소로티(Soroti) 병원으로 이동한 안과의 아피오(Dr. Apio)는 개인 건강문제와 소로티병원의 장비 문제로 인해 수술협력이 부진했습니다. 굴루(Gulu) 병원 안과의 와트몬(Dr. Watmon)은 9월부터 안과의사로서 임상의 역할을 접고, 모로토(Moroto) 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였고, 굴루병원에는 새로운 안과의가 총원되지 않아 수술 협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OCO(Ophthalmic Clinical Officer) 토니(Tonny)는 사전통보와 대체인력을 수급없이 일방적으로 수, 목 보건소 검진에 참여하지 하지 않아 검진사업의 신뢰성과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가중 시켰습니다.

5. 협력 지방병원 안과의사들의 근무지 이동, 직원의 결근으로 코피 사업 진행 어려움

캄팔라 외곽에 위치해 있는 치루두(Kirudu) 병원 안과의 페이지스(Dr. Patience)가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지부장과 함께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병원시설과 안과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안과의는 2개월 전에 파견되었고 5명의 OCO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안과 기본장비인 슬릿램프도 없어 한 사무실에 6명이 함께 모여서 손전등으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까지 슬릿램프가 지원될 계획이며 장비가 갖춰지면 의사 진료실, 소수수술실을 쓸 수 있게 되고 수술실 장비가 구비되면 수술실과 20개의 병상이 있는 병실도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캄팔라에 있는 다른 정부 병원인 나구루(Naguru) 병원과 달리 공간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장비만 구비되면 안과진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월초에 캠프를 하면서 협력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일반외과 캠프를 마치고...

일반 외과가 이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탈장과 고환 낭종 수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수술 직후 바로 퇴원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수술 대상은 전신마취 여부에 따라 10세 이전 아이들과 이후 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포함한 10세 이하 소아들의 경우 안전한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험 있는 마취사나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에 참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전체 20~30여 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수도 캄팔라에서 일하고 있어 환자들이 집중된 시골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신마취가 필요치 않은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대부분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 각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 책임자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를 선별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 보건 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면 4~6명(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간호사 2명, 매니저 및 운전기사 등)으로 외과 수술팀을 조직하여 지역을 순회하며 외과 캠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술팀은 하루에 8~10여 명의 환자를 수술할 수 있습니다. 2~3일간 수술을 하면 한 지역의 탈장 또는 고환 낭종 환자들 대부분을 수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술을 위해서 의료진과 수술장비, 소모품 확보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이동을 위한 차량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입니다. 캄팔라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도로 사정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도심을 벗어나 시골 진료소에 가려면 거친 비포장 도로와 진흙탕이 되어버린 길을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튼튼한 차량이 요구됩니다. 또한, 환자를 수술하는 목적도 복음 증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인술로는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환자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술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캠프를 개최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복음증거 외에 중요한 한 가지는, 환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수술비(2~5만 실링, 달러로 대략 \$15) 또는 이에 합당한 약, 물품을(소독약, 수술 장갑, 수술 기계 청소용 세제 등)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도 수술의 가치를 알게 하고, 모아진 수술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지역 교회 사역을 위해 드려짐을 보게 할 것입니다.

외과 캠프는 일년에 2~3회, 많게는 4회 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신동수 선교사
(일반외과 과장/목사)



베데스다선교병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프로젝트

12만원(한 달 만원)으로,
맑고 투명한 시력을 선물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정기후원 신청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Mission Fund** <http://go.missionfund.org/ugandabmh>

Prayer Topics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덮고, 이 백성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날까지 베데스다선교병원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외과 캠프와 백내장 수술을 위한 자원 마련

기간을 정하고 열었던 외과 캠프를 상시적으로 진행해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수술하고자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탈장 수술은 무료이고 수술에 필요한 혈액검사비와 수술후 약값만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예약 하였지만 수술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환자들은 교통비가 없어서 병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돕기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탈장 환자 한 명을 수술하기 위한 수술비 (검사비, 마취비, 수술비용 및 약값)가 약 100불 정도 필요합니다. 외과 환자 수술을 위한 펀드를 마련해서 보다 많은 외과 환자들이 수술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그동안 ODA 자금으로 진행하던 비전케어 실명 예방 프로젝트를 자체 펀드를 마련해서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개발 원조)지원 프로그램 운영시의 단점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인데 백내장 환자 한 명 개인 수술을 위해 100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원 마련을 위해 정기 후원 신청서를 만들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인당 1구좌 월 일 만원으로 일년에 한 사람을 수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명을 수술 할 수 있는 200구좌의 정기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외과와 백내장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부부마섬 아웃리치 및 진료소 활성화

매월 한차례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의 전문의들을 부부마섬에 보내 지역사회에 전문의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계속되는 안과, 외과, 성형외과 캠프와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6만이 되는 큰 섬이지만 일반의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나마 베데스다 진료소가 있는 곳은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Buvuma Health Centre IV 와는 차량으로 1시간 거리의 오지라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전무한 지역입니다. 베데스다 진료소에 정기적으로 전문의들을 파견해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사회를 섬기고 간호사를 훈련하며 베데스다 진료소가 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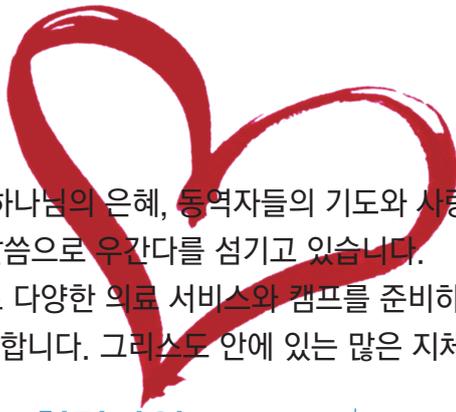
3. 아웃리치 사역을 위한 차량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아웃리치 사역을 위한 사륜구동의 단순하고 튼튼한 앰블란스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경북의대 90누가회 (1990년 2월 졸업한 경대의대 신우회 동기들) 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90누가회에서 지난 20년동안 우간다 베데스다 선교 병원을 위해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왔는데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우간다 선교지 방문을 2020년 8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앰블란스 기증식을 하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앰블란스 기증을 알아보고 주문해서 선적과 통관에 수 개월이 걸리는데 가장 적합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행정 부원장 및 간호부장 인력 보내주시도록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과 지원부서 인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행정 부원장과 간호사들을 훈련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간호부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협력 및 후원



베데스다선교병원은 2002년 부터 하나님의 은혜,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성장하며 의료 서비스와 말씀으로 우간다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동역자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장/단기 선교사역

1. 사역범위

1) 의료부문

-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치과 등
- 간호사(현지 간호사 훈련)

2) 행정/지원 부문

- 행정, 인사, 재무 등
- 광고, 홍보, 디자인, 미디어 등

2. 자격요건

- 건전한 기독교 교단의 세례교인
- 일상생활 수준의 영어 가능자

3. 사역구분

- 단기사역: 3~6개월
- 장기사역: 6개월 이상

협력사역

1. 의료협력

1) 환자초청

- 아프리카 현지에서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한국 초청 및 치료

2) 방문진료

-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의료 취약지역 방문을 통한 진료 실시

3) 예방의학

- 예방의학키트(교육자료, 응급처치약품 등) 제작 및 배포

2. 의료인력 훈련

- 우간다 의료인력 한국초청 교육
-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우간다 방문을 통한 분야별 진단, 수술, 치료 방법 교육

후원

1. 의료기기 및 의약품

- 진단 및 검사 장비 지원
- 수술 장비 및 기기 지원
- 의약품 지원
- 기타

2. 병원 운영

- 병원 건축 후원
- 열대병 연구소 설립 후원
- 의료 시설 및 설비 후원
- 병원 운영 후원

3. 선교사 후원

- 선교사 생활 안정과 자녀 교육
-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후원 이전에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도 메디컬 캠프 일정

| 시 기 | 내 용 |
|-----------|----------------------|
| 2.4~7 | 2019 힐링미션 캠프 (부시아) ✓ |
| 3월 전체 | 성형외과 캠프 ✓ |
| 3.30~4.6 | 비전케어 아이캠프 ✓ |
| 3월~5월 | 일반외과 캠프 ✓ |
| 5.15~18 | 나카세케 안과 캠프 ✓ |
| 6.15~22 | 비전케어 아이캠프 ✓ |
| 8.10~17 | 비전케어 아이캠프 ✓ |
| 9월 전체 | 성형외과 캠프 ✓ |
| 9.30~10.4 | 부부마 섬 외과 캠프 |
| 11.2~9 | 비전케어 아이캠프 |

복음 사역을 위해 메디컬 캠프가 필요한 선교단체나 NGO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독교 선교단체(선교사) 또는 NGO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문의 또는 요청
 - * 아웃리치 개최 최소 1개월 이전에 문의 및 요청 요망
 - * 메일 문의시에는 아웃리치 대상 지역과 연령대별 주민 분포, 일정, 필요한 진료 과목 등의 명확히 기재 요망
- 진료과목: 소아과, 내과(초음파 포함), 안과
 - * 진료과목은 의료진의 외래환자 진료 일정과 타 아웃리치와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역 참여 및 후원 방법

베데스다선교병원의 사역에 참여와 협력, 그리고 후원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256-414-530313,
+256-393-274584
bethesdamedicalcentre@gmail.com

후원계좌: 농협 615-01-146886

(예금주: (사)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선교사 후원을 원하실 때는 별도 기재사항에 선교사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ubmh.org>



<https://www.facebook.com/BethesdaMH/>



<https://www.slideshare.net/ubmhnews/>

"Slide Share"를 방문하시면 지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